

# '농도' 전남 벼농사 줄고 고소득 특용작물 늘었다

### 10년 새 논벼 경영 마을 6099개→5790개로 309개·5.1% 감소 축산 1002개 감소·비중 50% 선 무너져...특용작물·버섯 30% 급증

최근 10년 동안 전남에서 논벼 농사를 짓는 마을이 300개 넘게 없어지고, 특용작물이나 버섯을 키우는 마을은 250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전남에서 논벼가 있는 마을(읍·면 지역에 설치된 행정리)은 6337개로, 10년 전인 2010년보다 180개(-2.8%) 감소했다. 총 마을 수(6785개)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은 93.4%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중은 2010년

98.0%, 2015년 97.5%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논가가 있는 전남 마을은 6517개(2010년)→6600개(2015년)→6337개(2020년) 등으로 감소 추세다. 논가가 있는 마을의 농업 경영형태(중복)를 보면 지난해 기준 논벼 농사를 짓는 마을이 91.4%에 달하는 5790개로 가장 많았다. 콩과 보리 등 식량작물을 키우는 마을도 53.2%(3372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채소·산나물 70.3%(4458개), 과수 48.1%

(3051개), 축산 41.5%(2632개), 기타작물 34.6%(2190개), 특용작물·버섯 17.1%(1084개), 화초·관상작물 12.4%(2190개), 약용작물 8.0%(510개) 등이 뒤를 이었다. 농도(農道) 전남에서 쌀 농사를 짓는 마을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2010년 논가 마을에서 논벼가 차지하는 비중은 93.6%였지만, 2015년 92.5%, 지난해 91.4%로 조만간 90% 선이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서 논벼 농사를 짓는 마을 수는 6099개(2010년)→6103개(2015년)→5790개(2020년) 등으로 10년 새 309개(-5.1%)가 감소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사라진 농업 마을 경영 형태는 축산이었고, 많이 늘어난 형태는 기타작물과 특용작물·버섯이었다.

축산에 임하는 논가 마을은 3634개(2010년)→3004개(2015년)→2632개(2020년) 등으로 10년 동안 1002개(-27.6%)나 줄었다. 축산 경영 마을 비중은 55.8%→45.5%→41.5% 등으로 50% 선이 무너진 지 오래다. 채소·산나물 농사에 임하는 마을은 10년 동안 4803개에서 4458개로, 345개(-7.2%) 감소했다. 이외 화초·관상작물도 16.8%(947개→788개) 감소했다. 반면 10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경영 형태는 특용작물·버섯과 기타작물이었다. 특용작물·버섯을 키우는 마을은 10년 전 838개에서 지난해 1084개로, 246개(29.4%) 급증했다. 기타작물은 10년 전보다 294.6%(1635개) 증가한 2190개로 집계되며 고소득 작물에 주력하는 농업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수 농업을 하는 마을은 2841개(2010년)→3141개(2015년)→3051개(2020년) 등으로, 10년 동안 210개(7.4%) 증가했다. 약용작물 마을은 10년 전보다 31.1%(121개) 증가한 510개로 집계됐다. 10년 동안 논벼 농업이 가장 많이 줄어든 마을은 순천으로, 2010년 335개에서 지난해 287개로 48개(-1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수(-43개), 완도(-30개), 신안(-27개), 장흥(-25개), 곡성(-20개), 해남(-18개), 무안(-16개), 강진·장성(각 -11개), 담양·진도(각 -10개) 등도 논벼 농업 마을이 줄었다. 지난해 논벼 농사를 지은 마을은 고흥(462개), 해남(457개), 나주(418개) 순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어촌공사, 공공 서비스 기능 강화 나서

### '농지은행 관리원' 신설 기후 변화 대응 조직 강화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 1월부터 농지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농지은행 관리원'을 신설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미래전략실로 통합 운영하는 조직개편을 단행·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 서비스 기능 강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농지투기 예방, 기후 위기 대응, 산업안전 등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조사와 분석, 관리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 관리원(처)이 신설된다. 현재 사업 중심인 농지은행 체계를 농지 관련 전문성과 정보를 축적한 농지종합 관리기구로 재편해 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또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을 보호하

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 통합 물관리 정책 지원부서인 통합물관리 추진단을 농어촌연구원에서 본사 소속으로 옮긴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 사장 직속 조직인 미래전략실로 통합해 운영한다. 근본적인 안전의식 개선과 일선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 안전총괄 조직인 안전경영실과 지역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현장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지역본부 내 건설 현장과 시설관리 안전 전담 인력을 확충해 일선 현장에서 안전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공사의 기본적인 역할과 함께 신뢰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사랑의 김장 나눔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왼쪽 두 번째)는 최근 광산구를 찾아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광산구 21개 동에 전달될 김장김치 1000kg(200상자)를 전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농촌경제연구원, 인권경영평가 전년비 우수

기관운영 92%·사업분야 96% 달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외부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올해 '인권경영영향평가'에서 기관운영분야 91.9%, 사업분야 96.3%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달성률이 전년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인권경영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1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구원은 같은 해 인권위원회를 마련하고 매년

인권경영 내실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농업관측, 자유무역협정(FTA), 국제농업개발 등 사업부문에서는 96.3%의 인권경영 달성률을 보였다. 연구원은 내년부터 인권경영지수(KREI Hurix)를 만들어 개선과제를 도출·해결해서 인권리스크를 줄여 지속가능 경영 토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인권경영 실천기(2019~2021년)에 이어 확산기(2022~2024년), 선도기(2025~2027년)로 지속되는 인권경영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T 등 10개 기관, 광주 푸드뱅크에 친환경 농산물 기부 전남 배 생산량 5년만에 최고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적립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0개 기관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적립금을 활용해 최근 광주 시 푸드뱅크에 친환경 농산물 805kg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 농산물 나눔에 참여한 기관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내 산지조직 대표단체 등 10개 기관·기업이다. 공사는 지난 10월 국내 식품관련 회사 6개사, 3개 산지조직 대표와 '물류기기공동이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기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ESG 경영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산지조직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협업형 사회공헌을 실천하지는 약속했다. 참여 기업들은 친환경 농업으로 키워낸 버섯, 배, 귤 등 805kg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 전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에서 팜릿이나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해 출하하면 임차료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사와 풀회사, 산지조직은 앞으로도 자원 재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 절감 등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 ESG경영 실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6만8762t... 지난해 2.5배 올해 전남 배 생산량이 전년보다 147.5% 뛰며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6일 통계청 '2021년 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 배 생산량은 6만8762t으로, 전년보다 147.5%(4만974t) 증가했다. 전남 배 생산량은 전국(21만293t)의 32.7%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전남에 이어서는 충남 5만433t, 경기 2만7843t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 생산량은 지난 2016년(6만9119t)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은 2만7788t으로, 전년의 반토막(-45.1%) 수준이었지만 올해 2.5배 수준으로 뛰었다. /백희준 기자 bhj@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